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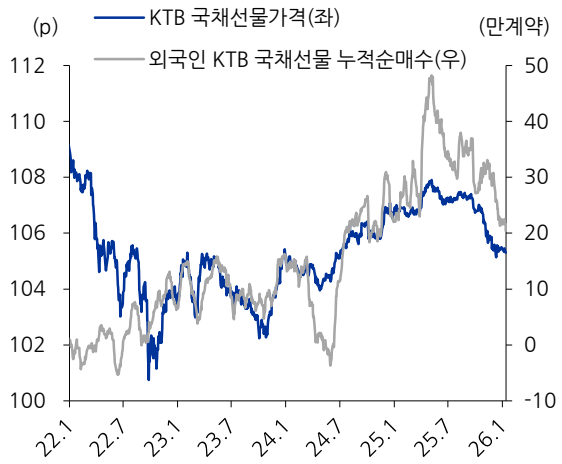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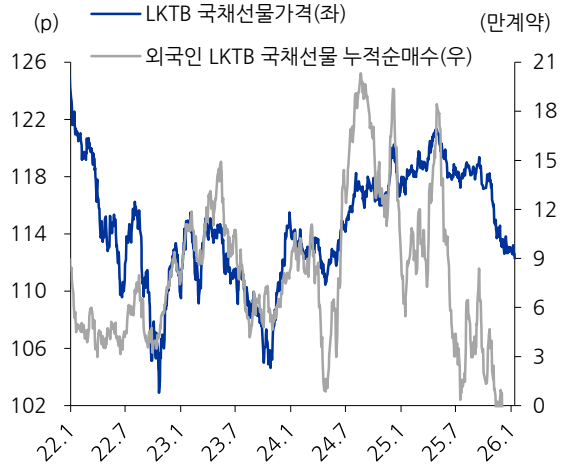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003%	2.3	5.5	5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412%	2.0	1.4	2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0.9	41.2	45.0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30	-2.0	-3.0	-14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30	-30.0	-26.0	-62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35%	-0.2	7.1	6.3
	미국채 10년물	4.180%	0.2	0.6	1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4.6	64.2	71.0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47%	0.6	0.7	-0.8
	호주국채 10년물	4.691%	0.4	-8.4	-6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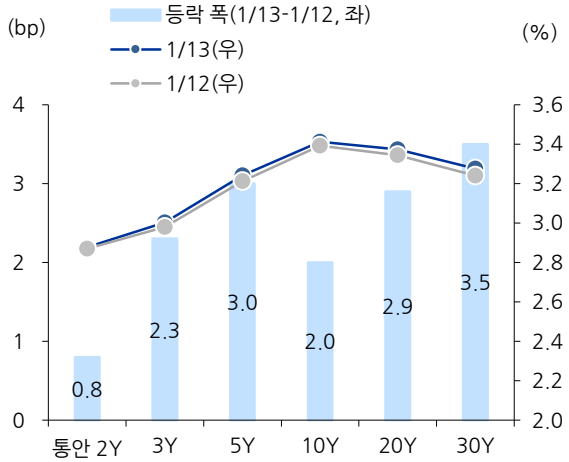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장 초반 강세 출발했지만 점차 약세 전환. 1월 금통위를 앞두고 매파적 태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으나 환율이 연말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147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우려 증폭됐기 때문.
- 일본 재정 우려에 일본 금리 상승했고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까지 겹치며 금리 상승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유럽권 국채 발행이 겹쳤으나 근원 CPI 예상치 하회로 금리 하락했음. 12월 근원 CPI 상승률 전월치는 0.2%, 전년비 2.6% 발표.
- 30년물 국채 추가 발행은 양호한 수준으로 진행되며 금리 영향력 제한적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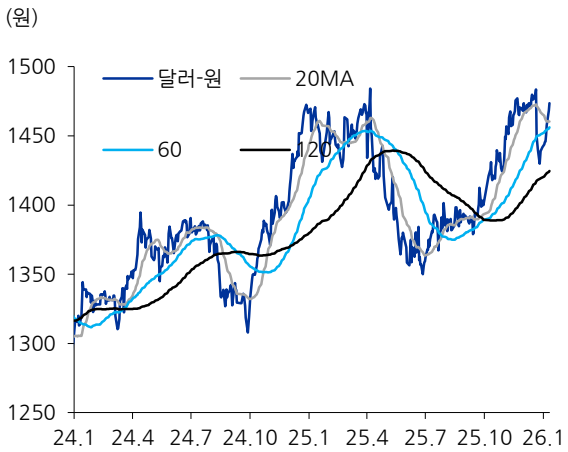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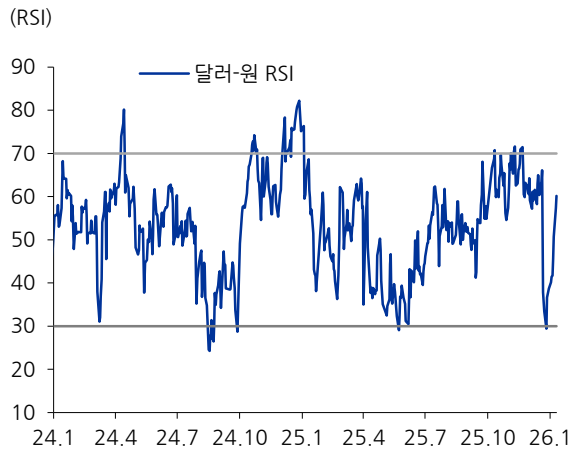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3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73.70	0.4%	2.0%	2.4%
	달러지수	99.15	0.2%	0.6%	0.9%
	달러/유로	1.165	-0.2%	-0.4%	-0.9%
	위안/달러(역외)	6.97	0.1%	-0.1%	-0.1%
	엔/달러	159.13	0.6%	1.6%	1.6%
	달러/파운드	1.343	-0.2%	-0.5%	-0.2%
	헤알/달러	5.38	0.0%	0.0%	-2.6%
상품	WTI 근월물($)	61.15	2.8%	7.0%	6.5%
	금 현물($)	4,586.76	-0.2%	2.1%	6.2%
	비트코인($)	94,715.00	3.3%	2.1%	7.8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5.30원 상승한 1,473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478.80원 마감.
- 전거래일 대비 +0.10원 상승 출발한 달러-원은 개장 직후 1,470원대로 레벨을 높인 뒤 정오 무렵 1,474원대에서 상단을 확인. 오후 내내 높은 수준에서 등락. 종가는 1,473.70원으로 마감하며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함.
- 연초 들어 누적된 수입 결제와 해외 투자 관련 달러 수요가 장중 내내 우위를 보였고, 엔화 급락이 원화 약세를 자극.
- 한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음에도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는 환율 상방에 힘을 실음. 네고 물량과 당국 경계감은 매수세를 상쇄하기엔 부족. 다만 미 CPI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추가 상방 가능성을 제한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 근원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엔화 약세 영향으로 반등.
- 달러는 12월 근원 CPI가 전월비 +0.2%, 전년비 +2.6%로 모두 시장 예상치(+0.3%, +2.7%)를 하회하자 장중 약세를 보이며 98.84선까지 밀림.
- 한편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 부각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며 달러-엔은 159엔대 초반까지 상승,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. 확장 재정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 약세를 자극했고, 달러 인덱스도 99선 회복.
- 시장에서는 향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주시하는 모습.